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이정배, 《생활》 *Form of Living*



이정배, 《생활》(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6) 전시전경.

**참여작가** : 이정배(b. 1974)  
**전시제목** : 《생활》  
**전시일정** : 2026년 2월 25일(수) – 4월 18일(토)  
**전시장소**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중로구 율곡로 85) 4F  
**전시작품** : 가구 및 작품 21 점

**[이미지 자료]** 다운로드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e\\_8kcKbt7QHTF4AQ\\_KXyPVsKi8SBVcdS](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e_8kcKbt7QHTF4AQ_KXyPVsKi8SBVcdS)

※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저작권 및 제공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 LEE Jeongbae.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2026. 이정배. [작가 및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문의]**

이상미 팀장, M. 010-8970-8415 / E. [sangmi.rhee@arariogallery.com](mailto:sangmi.rhee@arariogallery.com)

<b>자료목차</b>	1. 전시개요	-----	2
	2. 전시주제	-----	2
	3. 작품소개	-----	2-6
	4. 전시전경	-----	7-8
	5. 작가소개	-----	8
	6. 전시서문	-----	9-11
	7. 작가약력	-----	12-14

## 1. 전시개요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2026년 2월 25일(수)부터 4월 18일(토)까지 이정배(b. 1974) 개인전 《생활》을 개최한다. 이정배는 산수화를 대하는 관점으로 도심 속에서 발견되는 자연의 조각들을 포착해 왔다. 건물 사이에 우연히 드러난 햇빛, 하늘이나 산의 형태를 레진과 알루미늄 같은 인공 재료로 구현하며, 자연의 풍경을 기하학적으로 분절된 평면으로 변환한다. 표면을 수백 번 문지르고 도장하는 과정은 그가 말하는 '평평하게 문지른다'는 태도로, 새로운 의미를 덧붙이기보다 불필요한 층을 지워내며 표면만 남기려는 시도이다. 단색으로 마감된 그의 풍경은 자연의 구체적인 묘사 대신 감각과 기억만을 남긴다. 이러한 추상적 풍경들은 우리가 도심 속에서 스쳐 지나친 자연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감각적 지형도이자, 풍경을 '보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번 전시는 이정배의 작업 세계가 가구로 확장되는 지점을 조명하며, '미술가가 만드는 가구'라는 개념 아래 조형적 탐구가 생활 공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작가는 구조와 비례, 균형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사용성을 갖춘 가구를 제작하고, 이를 전시장 안에 실제 생활 환경의 형식으로 구성한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4층 전시실에서는 새롭게 제작된 가구 17점과 함께, 가구로 조성된 공간 속에서 자연의 풍경을 담은 평면 작품 4점을 선보인다.

## 2. 전시주제

이번 전시 《생활》은 '미술가가 만드는 가구'라는 개념 아래, 이정배가 오랫동안 축적해 온 조형 감각을 생활 속으로 확장하며 가구를 '쓰이는 조형'이자 일상 속에서 경험되는 조각으로 제시한다. 그의 가구는 기능과 형태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용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며, 몸의 사용과 시간의 축적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작가가 말하는 '쓰여지는 아름다움'은 가구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공간과 감각을 형성하는 조형적 매개가 됨을 의미하며, 전시는 이를 통해 가구를 삶의 구조를 드러내는 장치로 바라본다. 결국 《생활》은 가구를 통해 예술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며,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실용의 아름다움'과 생활 자체가 미학의 연장선이 되는 경험을 제안한다.

## 3. 작품소개

※고화질 이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저작권 및 제공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 LEE Jeongbae.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 ©2026. 이정배. [작가 및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 미술가가 만드는 가구

이정배에게 가구는 장르의 전환이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해 온 조형 감각이 생활 속으로 확장된 결과다. 변변한 가구 없이 시작한 신혼 시절, 아내의 권유로 직접 만든 작은 테이블은 나무라는 재료와의 첫 만남이자, 공간과 몸, 쓰임과 형태의 관계를 동시에 사유하게 한 출발점이었다. 이후 약 16 년에 걸쳐 이어진 목공의 시간 속에서

가구는 단순한 생활 도구를 넘어 생활과 작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반복되는 제작 과정 속에서 가구는 공간에 입히는 맞춤형처럼 인식되었고, 작가는 일상과 조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목공 작업의 시작점에 놓인 작품이 <쉽의 독서 테이블>(2026)이다. 여성을 위해 제작된 이 테이블은 실제 집에서 사용하던 의자와 함께 전시되며, 사적인 출발점이 어떻게 '미술가가 만드는 가구'라는 개념으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준다. <쉽의 독서 테이블> 위에는 <대숲 메모꽂이>(2026)가 놓이고, 돌의 무게를 받아 테이블 옆에 세워진 <서 있는 흰 등>(2026)이 함께 구성되어 하나의 장면을 이룬다. 작가가 수집한 돌은 기능적 지지대이면서 동시에 자연의 물성을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는 조형적 장치로 작동한다.

이정배는 가구를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조각으로 바라본다. 면과 구조, 비례는 조각처럼 엄밀하게 구성되지만 작품의 완성은 사용의 순간에 이루어진다. 작가가 말하는 '쓰이는 아름다움'은 가구가 감상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몸의 접촉과 시간의 축적 속에서 드러나는 미적 상태를 의미한다. 유용함과 아름다움은 분리되지 않으며, 그의 가구는 실용과 조형이 하나의 상태로 공존하는 작업이다. 모든 제작 과정이 작가의 손을 거치면서 나무의 결, 무게, 촉감은 통제되기보다 존중되고,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내는 과정 속에서 형태는 점차 단순하고 명료해진다. 그의 가구는 생활을 위한 사물이자 일상 속에서 경험되는 조각으로 존재한다.

### 가구로 짓는 삶의 구조

4층 전시실에 들어서면 다양한 테이블과 벤치, 조명, 오디오, 스톨과 책꽂이가 하나의 장면처럼 펼쳐진다. 이 공간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장소라기보다 몸이 잠시 머무르며 시간을 경험하는 생활의 환경에 가깝다. 전시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멀티 선반 <나로부터>(2026)는 공간에 맞춰 새롭게 제작된 작품으로, 그라시알 화이트 오크와 물푸레나무로 구성된 구조가 사각과 원형을 교차시키며 수평과 수직의 리듬을 만든다. 선반 사이에 삽입된 테이블 자리는 구조 안에 개인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며, 가구가 공간의 질서를 조직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낮은 함께>(2024) 테이블, <간극의 1>(2026)과 <간극의 3>(2026) 벤치, <울림의 스피커>(2026)로 이루어진 구역은 시선을 아래로 이끌며 몸의 높이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음악을 들으며 머무를 수 있는 자리 위로 삼베를 활용한 <하늘 흰 등>(2026)이 천장에서 내려와 부드러운 빛을 드리우고, 머무름의 시간을 더욱 느리게 확장한다. 호두나무, 체리나무, 웬지나무 등 서로 다른 수종의 가구들은 빛의 변화에 따라 미묘한 색과 질감을 드러내며, 낮은 테이블 위에 놓인 소품들 또한 동일한 조형 원리를 공유한다. 이 한쪽 공간의 벽면에는 이정배의 평면 작품 <진초록>(2020)이 놓여, 가구가 만들어내는 생활의 장면과 회화적 깊이가 조용히 맞닿는다.

별도의 리빙 공간처럼 구성된 다른 구역에는 여덟 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긴 호두나무 테이블과 책꽂이, 조명이 배치되어 있다. <함께 테이블>(2026) 위로 삼베 갓을 씌운 <하늘 긴 등>(2026)이 길게 빛을 드리우고, 벽을 지지하듯 서 있는 <흰 등>(2026)이 공간의 균형을 잡는다. 긴 테이블 옆에는 둥근 레드오크 상판 두 개를 이어 만든 <두 개의 함께 테이블>과 동일한 목재의 스톨들, 그리고 벽에 설치된 노랑색 평면 작품 <둘 이상의>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배치된다. 단순한 구조 속에서도 수평과 수직이 만드는 긴장감 있는 비례가 드러나며, 사람 사이의 거리와 시선의 흐름까지 공간의 일부로 조직된다. 이처럼 전시장은 각각의 가구가 기능을 넘어 관계와

시간을 형성하는 장치로 작동하는 장소가 된다.

전시 《생활》은 가구를 기능적 물건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드러내는 매개로 제시한다. 여기서 ‘생활’은 특정한 장면이 아니라 몸이 공간에 머물며 시간을 통과하는 방식 전체를 의미한다. 최소한의 형태와 절제된 구조 속에서 비례, 두께, 높이, 간격 같은 기본 요소가 정교하게 조율되며 사용자의 감각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설계된다. 이정배는 실제 생활 속에서 가구를 사용하며 빛의 변화와 동선, 반복되는 사용의 흔적을 관찰해 왔다. 나무의 결은 인위적으로 통제되기보다 드러나는 방향으로 존중되고, 장식 대신 촉각적 밀도와 표면의 온기가 가구의 인상을 만든다. 그렇게 축적된 경험 속에서 손수 만들어진 형태의 가구들은 전시장에 놓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결국 《생활》은 예술과 디자인, 전시와 일상의 경계를 느슨하게 풀어내며 가구를 통해 삶이 스스로 형태를 얻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것은 생활이 만들어낸 조형이자, 쓰임 속에서 완성되는 ‘실용의 아름다움’이다.



이정배 <양팔 책꽂이 *Two Arms Bookshelf*>(2026), 호두나무, 아우로 no.129 오일, 400 x 38.5 x 200(h) cm  
이정배 <하늘 긴 등 *Sky Long Pendant Light*>(2026), 호두나무, 자작합판, 삼베, 명주실, T5 조명, 260 x 5 x 6(h)cm



이정배 <함께 테이블 *Together Table*>(2026), 호두나무, 아우로 no.129 오일, 290 x 70.5 x 73(h) cm



이정배 <흰 등 *White Lamp*>(2026), 샤벨우드, 호두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 너도밤나무, 아우로 no.129 오일, 우리나라 견, 70 x 115 x 220(h) cm



이정배 <하늘 긴 등 *Sky Long Pendant Light*>(세부)(2026), 호두나무, 자작합판, 삼베, 명주실, T5 조명, 260 x 5 x 6(h)cm



이정배 <하늘 흰 등 *Sky White Pendant Light*>(2026), 호두나무, 자작합판, 아우로 no.129 오일, 삼배, 60 x 140 x 165(h) cm



이정배 <울림의 스피커 *Speaker of Resonance*>(2026), 인클로저: 웬지우드, 아우로 no.129 오일  
받침대: 레드오크, 아우로 no.129 오일  
스피커 유닛: 플레인지 유닛 로더 PM4a  
스피커 배선재: 네오넥 1410G, 더블유비티 바인딩 포스트  
몸체: 25 x 53 x 112(h) cm; 받침대: 41.5 x 73 x 6.5(h) cm



이정배 <간극의 3 *Three Intervals*>(2026), 체리나무, 아우로 no.129 오일, 240 x 37.5 x 43.5(h) cm



이정배 <낮은 함께 *Low Together*>(2024), 호두나무, 아우로 no.129 오일, 230 x 75 x 38(h) cm



이정배 <쉽의 독서 테이블 *Reading Table for Rest*>(2026), 호두나무, 아우로 no. 129 오일, 220 x 53 x 66(h) cm



이정배 <두 개의 함께 테이블 *Two Together Table*>(2026), 레드오크, 아우로 no.129 오일, 282.5 x 120 x 74(h) cm  
이정배 <둥글 다리의 스툴 *Round-Legged Stool*>(2026), 레드오크, 아우로 no.129 오일, 38 x 38 x 45(h) cm x 10 p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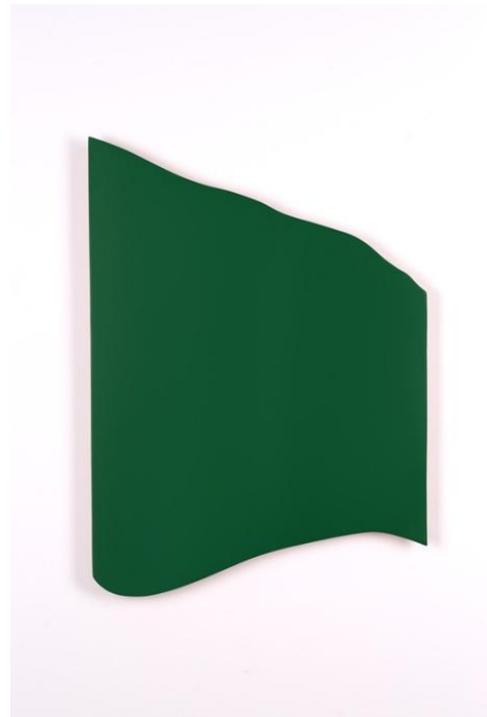
이정배 <서 있는 흰 등 *Standing White Lamp*>(2026),  
샤벨우드, 호두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 너도밤나무,  
자작합판, 아우로 no.129 오일, 우리나라 견,  
90 x 60 x 171(h) cm



이정배 <대숲 책꽂이 *Bamboo Grove Bookshelf*>(2026),  
단풍나무, 레드오크, 아우로 no.129 오일, 아크릴릭, 돌,  
46 x 30 x 200(h) cm



이정배 <둘 이상의 *More than Two*>(2025), 자작합판, 캔버스,  
우레탄 페인트, 아크릴릭, 231 x 108 cm



이정배 <진초록 *Dark Green*>(2020), 레진, 우레탄 페인트,  
68.5 x 49.3 x 3.2(d) cm

4. 전시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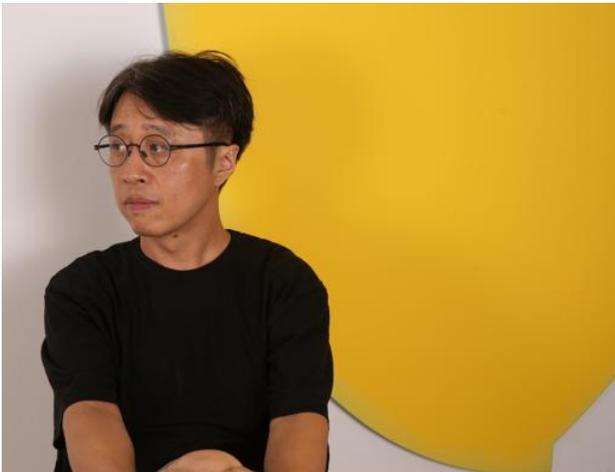
※고화질 이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저작권 및 제공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 LEE Jeongbae.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 ©2026. 이정배. [작가 및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이정배, 《생활》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6) 4층 전시전경.

## 5. 작가소개



이정배 작가 프로필 이미지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이정배는 1974년 출생으로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하였다.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서울, 한국, 2023), 서울시청(서울, 한국, 2021), 굿스페이스(서울, 한국, 2020), 서대문형무소역사관(서울, 한국, 2015), 갤러리 현대(서울, 한국, 2010)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상하이, 중국, 2025),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서울, 한국, 2024), 천안시립미술관(천안, 한국, 2024), 경기도미술관(안산, 한국, 2024), 캔파운데이션(서울, 한국, 2022), 브뤼셀 한국문화원(브뤼셀, 벨기에, 2021), 소마미술관(서울, 한국, 2021)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2011년 중앙미술대전 우수상을 수상하여 주목 받았고, 2013년 뉴욕 아트 오마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환기미술관, 아라리오컬렉션 등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 6. 전시서문

## 쓰이는 아름다움, 찬란한 생활

박선영 | 칼럼니스트

뽀족한 박공지붕을 얹은 새하얀 3 층짜리 목조주택. 파주 탄현면에 자리한 이정배 작가의 집을 방문할 때면, 대문에서 몇 걸음 떨어진 지점에 멈춰 서서 집의 모습을 바라보곤 한다. 그 안에서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을 생활의 움직임과 기척, 생동하는 창작의 기운을 떠올리노라면, 집의 외관은 그 모든 내부를 알고도 침묵하는 듯 하나의 응축된 형상처럼 다가온다. 미적 동지인 부부의 작업실과 아이들과의 생활의 자리, 어른들의 놀이터로 기능하는 느슨한 공유 공간을 모두 품은 집에서 생활과 작업은 서로 유연하게 침범하며 뒤섞인다. 생활의 생동이 작업을 촉발하고, 작업의 리듬이 다시 생활의 질서를 재편하는 이 집은 창의적인 리얼리티로 완성된다. 이정배는 동양화와 컨템포러리 아트, 회화와 조각, 산수와 삶의 풍경이라는 서로 다른 미적 언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작업해 왔다. 그러나 그 교차는 화면이나 조형물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의 조건 속으로 이동한다. 그가 구축한 조형 감각이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되는 곳은 바로 가구다. 그의 생활은 그 중첩이 발생하는 장이며, 일상엔 작업을 불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조건이다. 이 지점에서 가구는 자연스레 그의 삶 속으로 깊숙이 스며든다. 신혼 초, 살림살이가 부족해 작업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시절 아내의 제안으로 시작된 목공은 생활의 필요에서 출발한 실천이었다. 테이블 하나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며 체감한 기쁨은 반복적으로 호출되었고, 그는 집 안의 거의 모든 가구를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다. 공간과 유기적으로 호흡해야 하는 가구의 조건, 쓰임의 절박한 요구가 곧 제작의 동력이 되었다. 집을 채운 크고 작은 테이블, 벤치와 조명, 도마와 나이프, 스피커 케이스에 이르는 가구들, 나아가 한지를 곱게 바른 주방 문과 거실 한 면을 가득 메운 책꽂이까지도 생활이 촉발한 결과물이다. 가구는 그의 작업과 생활의 언저리에 놓인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생활이 요구한 조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또 하나의 조형 언어다. 그것은 생활이 형태를 얻는 과정에서 드러난 조형적 결과이자, 한 예술가가 삶을 통과하며 축적해 온 감각의 응답이다.

## 조각으로서의 가구

이정배 작가의 가구에는 보통의 가구가 가진 문법을 벗어나며 획득한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쓰임이 분명한 가구이면서도 동시에 예술 작품에 가까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무의 곱고 견고한 물성 사이로 아슬아슬한 긴장과 미적 쾌감이 감돈다. 생활이 요구한 사물일지라도, 아름다움은 그에게 가장 선행하는 조건이다. 아름다움이 전하는 영향력, 예술가로서의 본능과 책임은 이미지로 드러나는 모든 대상에 자연스럽게 투영된다. "미술가로서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적이고도 끝없는 동경이 있어요. 실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구는 조각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저는 그 경계를 허물고 싶어요. 가구 역시 이미지로 존재하는 만큼, 쓰임에 앞서 아름다움이 먼저 작동하길 바라면서 하나의 조각처럼 대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제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요. 늘 ‘쓰이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가구를 만드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구는 점차 조각에 가까워진다. 주위 온 돌맹이를 무게추로 매달아 늘어뜨린 스탠드, 얇고 긴 벤치 끝에 덧붙은 동그란 조형, 바닥에 고정된 가느다란 나무 막대들이 수직으로 솟아오른 책꽂이까지. 매달림, 덧붙임, 꽃힘이라는 최소한의 행위만으로 형태를 유지한 가구들은 사용과 감상의 경계를 미묘하게 흔든다. 이때 가구는 목적을 향해 곧장 나아가지 않고, 머뭇거리며 자기 형식을 의식하는 존재가 된다. 쓰임을 향한 충동과 형태로 남고자 하는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 조각적 인식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이정배는 조각을 ‘앞면’이라고 말한다. 특정한 시점을 강요하지 않는 존재,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성립하는 형식. 그래서 그의 가구에는 앞과 뒤가 없다. 벽으로 향하는 면이나 시선에서 벗어난 구조까지도 동일한 밀도로 다듬어진다. 보이지 않는 지점에까지 조형적 긴장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테이블 끝은 얇은 곡면으로 흘러보내듯 깎이고, 벤치의 좌판은 몸의 형태를 따라 오목하게 요입되어 부드러운 착석감을 품는다. 보이지 않는 테이블 하부의 접합부마저 노출된 목구조 방식으로 정교하게 끼워 맞추어진다. 이는 완성도를 향한 집요함을 넘어, 대상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대하는 조형적 태도와 맞닿아 있다. 생활에서 출발해 조형으로 수렴되는 감각. 바로 그 경계 위에서 이정배의 가구는 조각으로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작가는 자신의 존재 방식을 조용히 확인한다.

### 노동과 손, 끝까지 만드는 사람

이정배의 작업실에 들어서면 여기저기 쌓아둔 목재와 목공 기계, 바닥을 뒹구는 톱밥과 나무 가루, 수없이 굵히고 닳아버린 공구들로 가득하다. 시간을 통과한 적나라한 신체의 흔적처럼 그의 가구는 손과 몸이 밀어낸 치열한 노동의 소진 위에서 만들어진다. 그의 가구가 갖는 조형과 긴장, 내구성은 단순한 구조와 비례를 넘어, 한 인간의 몸이 전면적으로 개입한 시간의 총합에 가깝다. 그는 가구를 구상하는 순간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혼자 수행한다. 디자인을 그리고, 나무를 재단하고, 구조를 짜맞추며, 샌딩으로 표면을 다듬는 모든 과정은 그의 손을 통과한다. 깎고 갈아내는 반복 끝에 표면이 최적의 밀도에 닿는 순간을 감각으로 포착한다. 표면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수없이 문지르고 만져보며 다시 갈아내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형태는 깊이를 얻는다. “저에게 아름다움은 개념부터 손을 거친 표면에 닿기까지의 전부예요. 나무를 만지고 자르고 갈아내면서 도달할 수 있는 정서가 분명히 있거든요. 끝까지 제 손으로 밀고 나간 형태를 마주할 때 느끼는 충족감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예술가가 자기 손으로 끝까지 해내어 가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노동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제 삶과 작업은 직접 만들어보는 것에 방점을 두고 가고 싶습니다.” 현대미술이 개념과 기획으로 이동하며 제작의 물성을 점차 비워낼수록, 그의 작업은 오히려 손과 몸의 개입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현재성을 획득한다. 사라져가는 손의 자리를 다시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행위, 창작의 책임을 다시 신체로 되돌리는 태도. 그의 가구가 지닌 조각성은 무엇보다 노동의 문제다. 그것들은 미학적 결정 이전에 체력의 소모를 통과한 결과이며, 시간과 고통을 밀도 있게 응축한 물질이다. 매끈한 표면 아래에는 수없이 반복된 샌딩의 흔적이, 안정된 구조 안에는 몸으로 견뎌낸 무게의 기억이 숨어 있다. 이정배가 끝내 손을 놓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제작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작가가 작품의 주체로 남기 위한 마지막 경계다. 그의 가구가 지닌 묵직한 존재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생활에서 출발해 조각으로 귀결되고, 다시 노동의 시간 속에서 밀도를 얻는 형식. 그의 작업은 현대 예술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신체적 창작의 자리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회복하고 있다.

### 생활, 빛이 되는 자리

이정배의 전시 <생활>은 전시장을 잠시 집의 상태로 변모시킨다. 반듯한 흰 벽과 매끈한 바닥 사이에서도 공간은 오랜 머무름이 만든 온기가 스며있다. 음악이 낮게 흐르고, 테이블과 의자들이 적절한 간격으로 흩어져 있으며, 한쪽 벽을 따라 길게 이어진 책장이 공간에 완만한 리듬을 만든다. 오디오에서 번지는 소리 사이로 관객은 작품 앞에 선 감상자라기보다, 의자에 앉아 몸을 기대거나 나무의 결을 손끝으로 더듬는 사람에 가까워진다. 전시를 '본다'기보다 잠시 그 안에 '머문다'라는 감각이 먼저 스며드는 장면이다. 그 풍경 한가운데에 다섯 개의 조명이 서로 다른 높이와 자리에서 공간의 구심을 그린다. 천장에 매달려 삼베와 빛의 농도를 조율하는 <하늘 흰 등>은 종잇장처럼 얇게 켜낸 몸체가 스스로의 무게를 따라 자연스레 휘어진다. 단단히 고정된 구조라기보다, 공기와 빛의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춰 선 형상에 가깝다. 벽체 뒤에 기대어 있는 서 있는 <흰 등>은 어떤 접착이나 고정 없이 가늘게 버티고 있다. 쓰러질 듯한 긴장을 품은 채, 공간의 한쪽을 조용히 지탱한다. 호두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 너도밤나무, 샤벨우드의 다채로운 구성 사이로 견을 늘어뜨린 셰이드가 온화한 빛을 퍼뜨린다. 기능을 위한 구조물이면서 동시에 조각의 응축된 선과도 같다. 여러 겹의 시간과 손의 반복이 가늘게 농축되어 하나의 직립으로 서 있다. 완결된 덩어리라기보다, 지금도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는 긴장의 결정체처럼 보인다. 서로 다른 결과 밀도를 지닌 수종들을 불러 모아 단단함과 유연함, 구조와 긴장, 쓰임과 이미지 사이를 오가며 그는 나무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의 가구는 때로 이런 상상을 품는다. "저기 옷걸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건 그냥 조각이었으면 좋겠어." 조각에 옷을 걸어두는 것, 쓰임과 형식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그가 말하는 가구의 자리다. 그리고 그는 끝내 이렇게 되묻는다. "가구가 생활 빼고 또 어떤 더 찬란한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매일 기대고 앉고 만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과거의 시간과 앞으로 어떻게 증폭될지 모를 가능성까지 다 끌어안고, 다시 생활로 돌아오는 구조랄까요. 단출해 보이지만 그 일상이 결국 이 모든 걸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낮은 의자에 맞춰 높이를 낮춰 만든 독서 테이블, 끄적인 글귀나 드로잉을 꽂아두기 위해 떠올린 대나무 숲 메모꽂이, 손잡이의 촉감을 고치기 위해 모서리를 몇 번이고 다시 갈아내던 시간, 테이블 다리 끝을 버선코처럼 슬쩍 들어 올리려는 무용한 시도. 때로는 놀이처럼, 때로는 집요한 탐구처럼 이어지는 조정의 과정이었다. 그에게 생활은 과거와 미래를 함께 함축한 조건이며, 지금 살아 있는 한 계속해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전시 <생활>에 놓인 조명과 가구들은 그 가능성의 단면이다. 얇게 깎인 선과 아슬아슬한 직립,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밀어 넣은 손의 시간. 그 모든 시간과 반복, 조정과 망설임이 끝내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다. 그의 가구는 생활의 바깥에서 탄생하지 않았으며, 생활을 떠나서는 끝내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 그것들은 생활이 스스로를 밀어 올린다 마침내 얻은 형상이며, 매일의 자리에서 다져진 가장 단단한 증거다. 아마도 그것이, 그가 끝내 붙들고 있는 '찬란한 생활'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 7. 작가약력

### 이정배

1974 년 서울 출생  
파주에서 거주하며 작업

### 학력

201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미술학과 박사과정 수료  
2010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석사과정 졸업  
200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26 생활,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2023 문지르고 끼이고 빛이 나게,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서울, 한국  
2021 오늘의 풍경, 서울시청, 서울, 한국  
2020 Two Peaks, 굿스페이스, 대구, 한국  
Flat Protrusion, 굿스페이스, 대구, 한국  
2018 각진 직선, 피비갤러리, 서울, 한국  
2016 잠식, 피비갤러리, 서울, 한국  
2015 이미-항상, 광복 70 주년 기념 서대문 형무소 씨앗 프로젝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울, 한국  
2010 MORE, 갤러리현대 16 번지, 서울, 한국  
2010 욕망의 조각, 갤러리현대 원도우, 서울, 한국  
2006 분재가 된 풍경, 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 한국  
2005 그 서정적 그리움, 문화일보 갤러리, 서울, 한국

### 주요 단체전

2025 보이지 않는 속삭임, 수림큐브, 서울, 한국  
수묵별미: 자연과 도시, 검재정선미술관, 서울, 한국  
Fluid in Form,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 상하이, 중국  
수묵별미(水墨別美): 한.중 근현대 회화, 중국미술관, 베이징, 중국  
2024 수묵별미(水墨別美): 한.중 근현대 회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서울, 한국  
자신을 섬으로 (정암사 주최), 서울 봉은사 보우당, 정선 강원랜드, 정선 아리샘터, 서울, 정선, 한국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천안시립미술관, 천안, 한국  
에디터갑의 집, 오초량, 부산, 한국  
세월호참사 10 주기 추념전: 우리가, 바다,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2023 누크갤러리 10 주년 기념 누크갤러리 살롱전, 누크갤러리, 서울, 한국  
One Chair is Enough, 갤러리 ERD, 서울, 한국

- 2022 TUMPENG, 백아트 자카르타,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히든 타임즈, 히든 레이어즈, 프람프트 프로젝트, 서울, 한국  
 기적과 잠꾸러기, 두남재아트센터, 서울, 한국  
 얇은 창과 두꺼운 집, 오래된 집, 캔파운데이션, 서울, 한국  
 차가운 바람이 집으로 들어올 때, 마프, 서울, 한국
- 2021 나를 해매게 만드는 것들, 한벨 수교 120 주년 기념전, 브뤼셀 한국문화원, 브뤼셀, 벨기에  
 내일전\_Drag and Draw,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5 월의 산책로 야외 조각전, 스위스 그랜드 호텔 내 야외 산책로, 서울, 한국  
 피드백 #1, 갤러리 유진목공소, 서울, 한국
- 2020 PIBI-LINK, 피비갤러리, 서울, 한국
- 2019 쫓아가는 이유 없이, 누크갤러리, 서울, 한국  
 생활, 백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작업풍경, 이화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 2018 ART 369, 아트플레이스, 서울, 한국
- 2017 UNIFICATION #1, 바이산 코리아, 서울, 한국  
 강정대구현대미술제 2017, 낙동강 강정보 디아크 광장, 대구, 한국  
 Form and Color, SPACE KAAN, 서울, 한국  
 아티스트 라이브 쇼케이스, 디스위켄드룸, 서울, 한국
- 2016 New Visual Culture, 청년미술프로젝트, EXCO, 대구, 한국  
 2016 김향안 탄생 100 주년 기념전 II, The Muse, Kim HyangAn-Timeless, 환기미술관, 서울, 한국
- 2015 무심,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환경미술제-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 무등현대미술관, 광주, 한국  
 non-재현의 장치, 한옥갤러리, 서울, 한국  
 모멘텀: 아트오마이 1997-2014, 토탈미술관, 서울, 한국
- 2014 화가:사의 찬미, 한원미술관, 서울, 한국  
 오마주아 환기, 환기미술관, 서울, 한국  
 공간은 장소다, 갤러리조선, 서울, 한국
- 2013 한국화의 반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인지된 풍경, 아라리오갤러리 청담, 서울, 한국  
 오픈 스튜디오, ART OMI in NYC, 뉴욕, 미국  
 김환기를 기리며, 환기미술관, 서울, 한국  
 Up and Comers, 토탈미술관, 서울, 한국  
 와유설악, 일현미술관, 양양, 한국
- 2012 단서의경로들, 갤러리 소소, 파주, 한국
- 2011 do window, 갤러리현대 강남, 서울, 한국  
 중앙미술대전, 예술의전당, 서울, 한국  
 한국화의 재발견, 성남문화재단 큐브미술관, 성남, 한국
- 2010 The Elastic Mind, 갤러리 현대 두가현, 서울, 한국

- 2008 스콜라 컨템퍼러리아트 개관전, 아트스콜라 프로젝트 H, 베이징, 중국  
 예술과 과학의 만남, 국립과학관 개관전, 국립과천과학관, 과천, 한국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미술은 지금이다',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퍼니 스컬쳐 퍼니 페인팅전, 세줄갤러리, 서울, 한국  
 공간의 생산, 성남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성남, 한국
- 2007 포천 아시아 비엔날레 특별전, 포천, 한국  
 점으로부터 점으로, 환기미술관, 서울, 한국  
 하늘로 향한 새, 고양문화재단 어울림미술관, 고양, 한국  
 Around of ardor guys, Art Scola Gallery, 상하이, 중국

**프로젝트**

2015-16 씨앗프로젝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서울, 한국

**수상 및 지원**

- 2013 Art OMI International Art Residency Program 선정,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한국  
 2012 경기문화재단 유망작가 분야 기금수여, 한국  
 2011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한국  
 2010 아르코미술관 포트폴리오서가, 한국  
 2009 서울문화재단 기금수여, 한국  
 2008 소마드로잉센터 3 기작가 선정, 한국  
 2006 문예진흥기금 순수창작분야 기금 수여, 한국

**레지던시**

- 2013 ART OMI International Residency Program, 미국  
 2012 캠퍼운데이션 명륜동 스튜디오, 한국

**주요 소장처**

-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정부미술은행, 한국  
 환기미술관, 한국  
 아리리오컬렉션, 한국  
 캔 파운데이션, 한국  
 중앙일보, 한국  
 더난 출판사, 한국  
 ART OMI 컬렉션, 미국

ARARIO GALLERY SEOUL

LEE Jeongbae  
*Form of Living*



Installation view of LEE Jeongbae: *Form of Living*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6.

**Artist** : LEE Jeongbae(b. 1974, Korea)  
**Title** : Form of Living  
**Dates** : 25 Feb -18 Apr 2026  
**Venue** : ARARIO GALLERY SEOUL (85 Yulgok-ro, Jongno-gu, Seoul, Korea) 4F  
**Artworks** : 21 Works in total

**[Artwork images and Installation view]**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0HtBJaoyKMC8D2\\_1474eaVg68dKXf4le](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0HtBJaoyKMC8D2_1474eaVg68dKXf4le)

**[Inquiry]**

ARARIO GALLERY SEOUL | E. info@arariogallery.com  
 Sangmi RHEE, Deputy Director | E. sangmi.rhee@arariogallery.com

<b>Table of Content</b>	<b>1. Exhibition Overview</b>	-----	2
	<b>2. Exhibition Theme</b>	-----	2
	<b>3. Artworks</b>	-----	2-6
	<b>4. Installation view</b>	-----	7-8
	<b>5. Artist Introduction</b>	-----	8
	<b>6. Essay</b>	-----	9-11
	<b>7. Artist CV</b>	-----	12-14

## 1. Exhibition Overview

ARARIO GALLERY SEOUL is pleased to present LEE Jeongbae (b. 1974)'s solo exhibition *Form of Living*, on view from February 25 (Wed) to April 18 (Sat), 2026. LEE Jeongbae has long captured fragments of nature discovered within the urban environment through a perspective informed by traditional landscape painting. Sunlight unexpectedly revealed between buildings, as well as the forms of sky and mountains, are rendered in industrial materials such as resin and aluminum, transforming natural scenery into geometrically segmented planes. The artist's process—repeatedly rubbing and coating the surface hundreds of times—embodies what he describes as an attitude of “flattening through rubbing,” an attempt not to add new meanings but to remove unnecessary layers, leaving only the surface behind. His monochromatic landscapes retain sensation and memory rather than concrete depiction, functioning as sensory topographies that prompt viewers to reconsider the fleeting encounters with nature embedded in everyday urban life and to question the very act of seeing landscape. This exhibition highlights the point at which LEE Jeongbae's artistic practice expands into furniture. Under the notion of “furniture made by an artist,” it traces how his sculptural inquiry extends into living space. Grounded in structure, proportion, and balance, the artist produces furniture that maintains fundamental usability, arranging them in the gallery as a setting resembling a real domestic environment. On the 4th floor of ARARIO GALLERY SEOUL, the exhibition presents 17 newly produced furniture pieces alongside four two-dimensional works depicting natural landscapes, installed within a spatial composition formed by the furniture itself.

## 2. Exhibition Theme

In this exhibition *Form of Living*, conceived under the notion of “furniture made by an artist,” LEE Jeongbae extends the sculptural sensibility he has accumulated over many years into the realm of everyday life, presenting furniture as both “functional form” and sculpture experienced in daily use. His furniture embodies a state in which function and form are inseparable, allowing practicality and beauty to coexist, and reaching completion only through bodily use and the accumulation of time. What the artist calls “beauty that is used” suggests that furniture moves beyond being a mere tool to become a sculptural mediator that shapes space and perception. Through this perspective, the exhibition considers furniture as a device that reveals the underlying structure of living itself. Ultimately, the exhibition *Form of Living* explores how art can operate within everyday life through furniture, proposing an experience in which “beauty that is used” traverses the boundary between art and daily life, and where living itself becomes an extension of aesthetics.

## 3. Artworks

\*The high-resolution images can be downloaded via the Google Drive link provided on the first page.

\*When using artwork image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copyright credit: [©2026. LEE Jeongbae.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 Furniture Made by an Artist

For LEE Jeongbae, furniture is not a shift of genre but an extension of the sculptural sensibility he has accumulated over many years into the sphere of everyday life. During the early years of his marriage, when the couple had little furniture, a small table he built at his wife's suggestion became his first encounter with wood. It was also a starting point that prompted him to consider the relationships between space and body, use and form. Over roughly sixteen years of woodworking, furniture has come to function as more than a practical household object; it has become a site where life and artistic practice continually influence one another. Through the repetition of making, furniture came to be understood as a kind of tailored garment for space, demonstrating how closely everyday life and sculptural form are intertwined. The work placed at the origin of this trajectory is Rest Table (2026). Created for a woman and exhibited

alongside a chair actually used in the artist's home, the piece reveals how a private point of departure expands into the broader concept of "furniture made by an artist." On the table rests Bamboo Grove Memo Holder (2026), while Standing White Lamp (2026), supported by the weight of a stone, and is positioned beside it, forming a single scene. Stones collected by the artist function both as structural supports and as sculptural devices that introduce the material presence of nature into the space.

LEE Jeongbae regards furniture not simply as objects but as sculptures. Planes, structures, and proportions are composed with the same rigor as in sculpture, yet the work reaches completion only in the moment of use. What he calls "beauty that is used" refers to an aesthetic state that emerges through bodily contact and the accumulation of time rather than remaining an object of detached contemplation. Utility and beauty are inseparable; his furniture exists in a state where function and form coexist as one. As every stage of production passes through the artist's hands, the grain, weight, and tactility of the wood are respected rather than controlled, and forms gradually become simpler and clearer through the removal of unnecessary elements. His furniture exists simultaneously as an object for living and as sculpture experienced in daily life.

### **Constructing the Structure of Living**

Upon entering the fourth-floor gallery, visitors encounter a scene composed of tables, benches, lighting, audio pieces, stools, and bookshelves. Rather than a conventional exhibition space, it resembles an environment in which the body pauses and experiences time. Filling one wall, the multi-shelving work *From Me* (2026), newly created for the space, combines glacial white oak and ash wood to form a structure where rectangles and circles intersect, and generating a rhythmic interplay of horizontal and vertical lines. The insertion of table surfaces within the shelving naturally establishes a personal position within the structure, revealing how furniture organizes spatial order.

Another area, consisting of the table *Low Together* (2024), the benches *One Interval* (2026) and *Three Intervals* (2026), and *Speaker of Resonance* (2026), draws the gaze downward and encourages the body to lower itself. Above a place designed for listening and lingering, *Sky White Pendant Light* (2026), made with hemp fabric, descends from the ceiling, casting a soft light that further slows the passage of time. Furniture crafted from walnut, cherry, and wenge wood reveals subtle variations of color and texture as light shifts, while small objects placed on the low table share the same sculptural principles. On the wall of this area hangs LEE's sculptural flat work *Dark Green* (2020), where the painterly depth quietly resonates with the living scene created by the furniture.

In another zone arranged like a separate living room, a long walnut table seating eight is accompanied by bookshelves and lighting. Above *Together Table* (2026), *Sky Long Pendant Light* (2026), fitted with a hemp shade, casts an elongated glow, while *White Lamp* (2026), standing as if supporting the wall, stabilizes the spatial balance. Nearby, *Two Together Table* (2026), formed by joining two round red-oak tops, is arranged with stools made of the same wood and the yellow wall piece *More Than Two* (2025), establishing relationships among the works. Even within simple structures, the tension between horizontal and vertical proportions becomes evident, organizing not only objects but also the distances between people and the flow of sight. In this way, the gallery becomes a site where furniture operates beyond function to shape relationships and time.

The exhibition *Form of Living* presents furniture not as functional objects but as mediators that reveal the structure of life. Here, "living" refers not to a specific scene but to the entire way the body inhabits the space and passes through time. Within minimal forms and restrained structures, fundamental elements such as proportion, thickness, height, and intervals are carefully calibrated so that the user's sensory awareness can operate naturally. LEE has observed shifts in light, movement, and traces of repeated use while living with his furniture. The grain of the wood is respected rather than artificially controlled, and instead of ornamentation, tactile density and the warmth of surfaces define the character of each piece. Though these hand-crafted forms are placed in the gallery, they remain ready to return to everyday life at

any moment. Ultimately, *Form of Living* gently dissolves the boundaries between art and design, exhibition and daily life, revealing how life itself acquires form through furniture. It is a sculptural expression shaped by living, and a manifestation of the “beauty of utility” completed through its use.



LEE Jeongbae, *Two Arms Bookshelf* (2026),  
Walnut wood, Auro no. 129 oil, 400 x 38.5 x 200(h) cm  
LEE Jeongbae, *Sky Long Pendant Light* (2026),  
Walnut wood, birch plywood, hemp cloth, silk thread, T5 light,  
260 x 5 x 6(h)cm



LEE Jeongbae, *Together Table* (2026),  
Walnut wood, Auro no. 129 oil, 290 x 70.5 x 73(h) cm



LEE Jeongbae, *White Lamp* (2026),  
Sapele wood, walnut wood, ash wood, maple wood, beech wood,  
Auro no. 129 oil, Korean fabric, 70 x 115 x 220(h) cm



LEE Jeongbae, *Sky Long Pendant Light* (Detail) (2026),  
Walnut wood, birch plywood, hemp cloth, silk thread, T5 light,  
260 x 5 x 6(h)cm



**LEE Jeongbae, *Sky White Pendant Light* (2026),**  
Walnut wood, birch plywood, Auro no.129 oil, hemp cloth  
60 x 140 x 165(h) cm



**LEE Jeongbae, *Speaker of Resonance* (2026),**  
Enclosure: Wenge wood, Auro no. 129 oil  
Base: red oak, Auro no. 129 oil  
Speaker Unit: Full range unit lowther PM4a  
Speaker Wiring: Neoneck 1410G, wbt binding post  
Body: 25 x 53 x 112(h) cm; Base: 41.5 x 73 x 6.5(h) cm



**LEE Jeongbae, *Three Intervals* (2026),**  
Cherry wood, Auro no.129 oil, 240 x 37.5 x 43.5(h) cm



**LEE Jeongbae, *Low Together* (2024),**  
Walnut wood, Auro no. 129 oil, 230 x 75 x 38(h) cm



**LEE Jeongbae, *Reading Table for Rest* (2026),**  
Walnut wood, Auro no. 129 oil, 220 x 53 x 66(h) cm



**LEE Jeongbae, *Two Together Table* (2026),** Red oak, Auro no. 129 oil,  
282.5 x 120 x 74(h) cm  
**LEE Jeongbae *Round-Legged Stool* (2026),** Red oak, Auro no. 129 oil, 38  
x 38 x 45(h) cm x 10 p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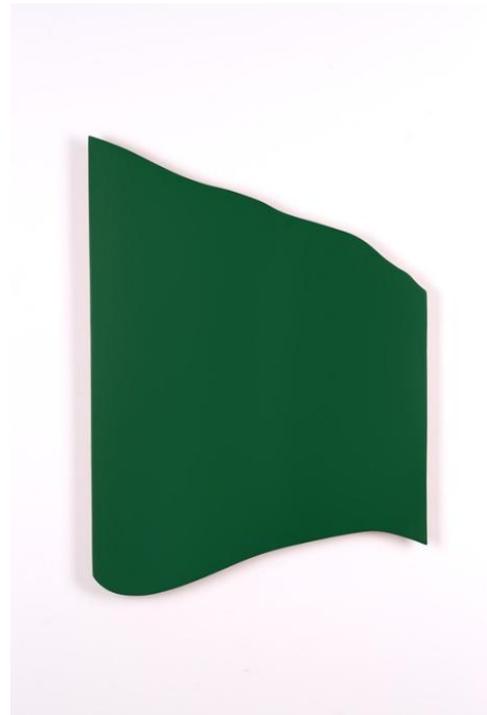
LEE Jeongbae, *Standing White Lamp* (2026),  
Sapele wood, walnut wood, ash wood, maple wood, beech wood,  
birch plywood, Auro no. 129 oil, Korean fabric, 90 x 60 x 171(h) cm



LEE Jeongbae, *Bamboo Grove Bookshelf* (2026),  
Maple wood, red oak, Auro no. 129 oil, acrylic, stone,  
46 x 30 x 200(h) cm



LEE Jeongbae, *More than Two* (2025), Birch plywood, canvas,  
urethane paint, acrylic, 231 x 108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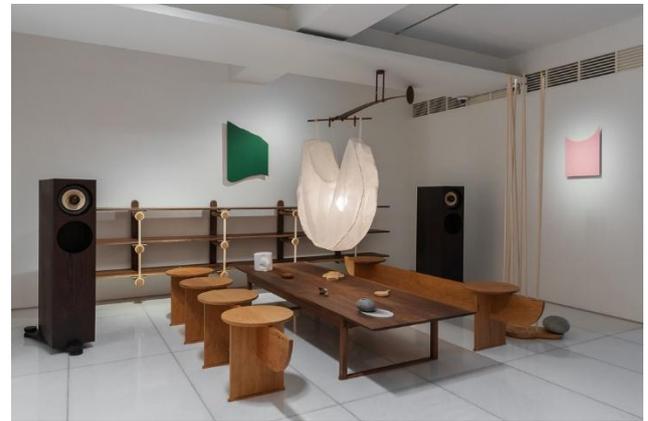


LEE Jeongbae, *Dark Green* (2020), Resin, urethane paint,  
68.5 x 49.3 x 3.2(d) cm

4. Installation view

\*The high-resolution images can be downloaded via the Google Drive link provided on the first page.

\*When using artwork image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copyright credit: ©2026. LEE Jeongbae.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Installation view of *LEE Jeongbae: Form of Living* at ARARIO GALLERY SEOUL (4F), Seoul, Korea, 2026.

## 5. Artist Introduction



Artist LEE Jeongbae

LEE Jeongbae (b. 1974) received his BFA in Oriental Painting from Hongik University, Seoul, and his MFA from the same institution. His solo exhibitions have been held at ARARIO MUSEUM in SPACE (Seoul, Korea, 2023), Seoul City Hall (Seoul, Korea, 2021), Good Space (Seoul, Korea, 2020),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Seoul, Korea, 2015), and Gallery Hyundai (Seoul, Korea, 2010), among others. He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including at ARARIO GALLERY Shanghai (Shanghai, China, 2025), MMCA Deoksugung (Seoul, Korea, 2024), Cheonan Museum of Art (Cheonan, Korea, 2024),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2024), CAN Foundation (Seoul, Korea, 2022), Korean Cultural Center Brussels (Brussels, Belgium, 2021), and SOMA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1).

## 6. Essay

### The Beauty That Is Used, A Radiant Life

PARK Sunyoung | Columnist

A white three-story wooden house crowned with a sharply pitched gable roof. Whenever I visit the home of artist LEE Jeongbae in Tan-hyeon, Paju, I stop a few steps away from the gate and take in the view of the house. Imagining the movements and traces of everyday life unfolding busily inside, along with the vibrant energy of creation, the exterior appears like a condensed form that silently contains everything within. In this house—which embraces the studios of an aesthetically kindred couple, the space of daily life with their children, and a loosely shared area that functions as a playground for adults—life and work fluidly overlap and intermingle. The vitality of living sparks the work, while the rhythm of making reshapes the order of daily life. In this way, the house becomes a creative reality.

LEE Jeongbae has long worked at the intersection of different aesthetic languages: East Asian painting and contemporary art, painting and sculpture, landscape and the scenery of life. Yet this intersection does not remain on the canvas or in objects; it moves into the conditions of living itself. The place where his sculptural sensibility is most directly realized is furniture. His life is the site where these layers overlap, and everyday living is the most immediate condition that calls forth his work. At this point, furniture naturally permeates his life. In the early days of marriage, when household items were scarce and he ate meals at his worktable, woodworking began at his wife's suggestion—an act born of necessity. The joy he felt from making and using a table himself was repeatedly recalled, and he soon began crafting nearly all the furniture in the house. Furniture, which must breathe organically with space, and the urgent demands of use became the driving force of production. Large and small tables, benches and lights, cutting boards and knives, speaker cases, the kitchen door carefully covered with hanji, and even the bookshelf that fills an entire wall—these are all results prompted by living. Furniture is not a secondary element on the margins of his art and life, but another sculptural language that emerges naturally from the conditions demanded by living. It is the formal outcome revealed in the process by which life acquires shape, and a response accumulated through an artist's passage through life.

#### Furniture as Sculpture

In LEE Jeongbae's furniture there exists a beauty gained by stepping outside the usual grammar of furniture. Though clearly functional, each piece possesses a presence close to that of an artwork, where subtle tension and aesthetic pleasure flow through the refined yet solid materiality of wood. Even when an object arises from the needs of daily life, beauty is always the foremost condition for him. The influence of beauty and the instinct and responsibility of the artist naturally project onto everything that appears as an image.

“As an artist, I have an instinctive and endless longing for beauty. From the standpoint of utility, furniture may seem different from sculpture. But I want to dissolve that boundary. Since furniture also exists as an image, I treat it like a sculpture, hoping beauty will operate before use. It is at that point that I confirm my own existence. That's why I always think of the phrase ‘the beauty that is used’ when making furniture.”

Here, furniture gradually approaches sculpture. A stand weighted by a found stone, a long slender bench with a circular form attached at its end, a bookshelf where thin wooden rods fixed to the floor rise vertically—these pieces maintain

their forms through minimal actions such as hanging, attaching, and inserting. In doing so, they subtly unsettle the boundary between use and contemplation. Furniture no longer moves directly toward its purpose; it hesitates, becoming aware of its own form. At the moment when the impulse toward use intersects with the tension of remaining as form, a sculptural awareness emerges. LEE Jeongbae describes sculpture as having no “front.” It is a form that does not impose a single viewpoint, existing equally from any direction. Accordingly, his furniture has neither front nor back. Even the surfaces facing the wall or hidden from sight are finished with the same density. Sculptural tension does not falter even in invisible areas. Table edges flow into thin curves, bench seats are gently hollowed to follow the body, and even the underside joinery is carefully exposed through traditional wood construction. This approach goes beyond perfectionism; it reflects a sculptural attitude that treats each object as an independent being. Emerging from life and converging into form, his furniture exists as sculpture precisely on that boundary—where the artist quietly affirms his mode of being.

### **Labor, Hands, and the One Who Makes to the End**

Entering LEE Jeongbae’s studio, one finds piles of lumber, woodworking machines, sawdust scattered across the floor, and tools worn and scratched by use. Like the raw traces of a body that has passed through time, his furniture is created atop the exhaustion of intense labor pushed forward by hands and body. Its form, tension, and durability are less about structure or proportion alone than the sum of time in which a human body has fully intervened. He carries out every stage alone, from conception to completion: drawing designs, cutting wood, assembling structures, and sanding surfaces. Through repeated carving and polishing, he senses the moment when the surface reaches optimal density. Form does not emerge at once; only through time spent touching, rubbing, and refining does it gain depth.

“For me, beauty is everything—from the concept to the surface shaped by my hands. There is a feeling you can only reach by touching, cutting, and sanding wood. The fulfillment of seeing a form pushed through entirely by my own hands can’t be replaced. When artists carry things through with their own hands, it is profoundly beautiful. Labor and effort appear beautiful to me, which is why I want both my life and work to emphasize making directly.”

As contemporary art moves toward concept and planning, often emptying out the materiality of making, his work gains a paradoxical contemporaneity by sustaining the intervention of hand and body to the end. It is an act of restoring the disappearing place of the hand, returning the responsibility of creation to the body. The sculptural quality of his furniture is, above all, a matter of labor. Before aesthetic decisions, these works are results of physical expenditure—materials condensed with time and pain. Beneath their smooth surfaces lie countless traces of sanding; within their stable structures, memories of weight endured by the body remain. This is why LEE never lets go of the process. Making is not merely a step, but the final boundary that allows the artist to remain the subject of the work. The solid presence of his furniture arises precisely here. Beginning in life, converging into sculpture, and gaining density through time and labor—his practice quietly yet firmly restores the bodily site of creation that contemporary art is gradually losing.

### **Living, the Place Where Light Emerges**

LEE Jeongbae’s exhibition *Form of Living* temporarily transforms the gallery into a state of home. Amid clean white walls and polished floors, the space holds the warmth of long habitation. Music flows softly, tables and chairs are scattered at measured intervals, and a long bookshelf along one wall creates a gentle rhythm. Visitors feel less like viewers standing before artworks and more like people lingering—resting on a chair or tracing the grain of wood with their fingertips. Rather than “seeing” the exhibition, one first experiences the sensation of “staying” within it. At the center of this landscape, five lights at different heights and positions draw the spatial axis. *Sky White Pendant Light*, suspended from the ceiling, modulates the density of hemp fabric and light, its thin body bending naturally under its own weight. Leaning

lightly against a wall, standing *White Lamp* balances without adhesive or fixture, quietly sustaining tension as if on the verge of falling. Among a rich composition of walnut, ash, maple, beech, and sapele wood, shades draped with silk diffuse a gentle glow. These works are structures for function yet simultaneously condensed sculptural lines. Layers of time and repeated gestures are finely concentrated into each upright form, appearing less as completed masses than as crystallizations of tension still subtly adjusting. Moving between hardness and flexibility, structure and tension, use and image, he pushes the possibilities of wood to their limits. LEE's furniture sometimes carries an imagination like this: "It would be nice if there were a coat rack there—but I'd rather it just be a sculpture." Hanging clothes on sculpture—where use and form are indistinguishable—that is the place he assigns to furniture. And he ultimately asks: "What more radiant thing could furniture speak of besides living? Everything begins where we lean, sit, and touch every day. It's a structure that holds the time of the past and unknown future possibilities, which then returns again to living. It may seem simple, but daily life ultimately produces all of this."

A reading table lowered to match a low chair, a bamboo grove memo holder conceived to tuck in scribbles and drawings, the repeated sanding of a handle to refine its tactile feel, the futile yet playful attempt to lift the end of a table leg like the curve of a traditional shoe—these were adjustments that continued like play at times and like obsessive inquiry at others. For LEE, living is a condition that contains both past and future, a possibility that continues to expand as long as life persists. The lights and furniture in *Form of Living* are fragments of that possibility. The finely carved lines, the precarious uprightness, and the time of hands pressed into even the unseen areas—all these hours of repetition, adjustment and hesitation ultimately point to a single truth: his furniture was not born outside of life, nor can it ever be completed apart from it. They are forms that life has pushed upward within itself, the most solid evidence shaped in the place of the everyday. Perhaps that is another name for the "radiant life" he continues to hold onto in the end.

## 7. Artist CV

### LEE Jeongbae

Born in 1974, Seoul, Korea

#### EDUCATION

- 2012 D.F.A Oriental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2010 M.F.A Oriental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2002 B.F.A Oriental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26 *Form of Living*,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2023 *Rub, Jam and Glimmer*, ARARIO MUSEUM in SPACE, Seoul, Korea
- 2021 *Contemporary Nature*, Seoul, City Hall, Seoul, Korea
- 2020 *Two Peaks*, GOODSPACE, Daegu, Korea  
*Flat protrusion*, GOODSPACE, Daegu, Korea
- 2018 *Angled Straight*, PIBI Gallery, Seoul, Korea
- 2016 *Encroachment*, PIBI Gallery, Seoul, Korea  
*Already-Always Seed Project*,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Seoul, Korea
- 2010 *More*, 16bungee, Gallery Hyundai, Seoul, Korea  
*Pieces of Desire*, Window Gallery, Gallery Hyundai, Seoul, Korea
- 2006 *Scene in the Pot*, Artside Gallery, Seoul, Korea
- 2005 *Lyrical Longing*, MunhwaIlbo Gallery, Seoul, Korea

####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5 *Whispers of the Invisible*, Soorim Cube, Seoul, Korea  
*The Modern and Contemporary Ink Art: Nature and the City*, Gyeongjae Jeongseon Art Museum, Seoul, Korea  
*Fluid in Form*, ARARIO GALLERY SHANGHAI, Shanghai, China  
*The Modern and Contemporary Ink Ar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ational Art Museum of China, Beijing China
- 2024 *The Modern and Contemporary Ink Ar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Deoksugung, Seoul, Korea  
*Mugunghwa Has Bloomed*, Cheonan Museum of Art, Cheonan, Korea  
*Editor Kab's House*, Ochoryang, Busan, Korea  
*Memorial Exhibition for the 10<sup>th</sup> Anniversary of the Sewol Ferry Disaster: Memory, Stare, Wish*,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 2023 *Salon de Nook Gallery*, Nook Gallery, Seoul, Korea  
*One Chair is Enough*, Galerie ERD, Seoul, Korea
- 2022 *TUMPENG*, Baik Art Jakarta, Jakarta, Indonesia  
*Hidden Times Hidden Layers*, Prompt Project, Seoul, Korea  
*The Miracle and the Sleeper*, Doonamjae Art Center, Seoul, Korea  
*Thin Window in Thick House*, The Old House, Can Foundation, Seoul, Korea  
*When the Cold Breeze Comes in the House*, MAF, Seoul, Korea
- 2021 *What Makes Me Wander*, Korea Cultural Center Brussels, Brussels, Belgium  
*Drag and Draw*,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eoul, Korea  
*Art Trail of May Outdoor Sculpture Exhibition*, Outdoor Walking Trails of Swiss Grand Hotel, Seoul, Korea  
*Feedback #1*, Gallery Eugene Carpentershop, Seoul, Korea
- 2020 *PIBI\_LINK*, PIBI Gallery, Seoul, Korea
- 2019 *Following for no reason*, Nook Gallery, Seoul, Korea  
*Seng Hwal - Lee Jeongbae & Lee Jinju*, Baik Art Gallery, Seoul, Korea  
*Work Landscape*, Ewha Art Gallery, Seoul, Korea
- 2018 *ART 369*, Artplace, Seoul, Korea

- 2017 *UNIFICATION #1*, Baishan Korea, Seoul, Korea  
*Gangjeong Daegu Contemporary Art Festival 2017*, Daegu, Korea  
*Forms and Color*, SPACE KAAN, Seoul, Korea  
*Artist live showcase*, This Weekend Room, Seoul Korea
- 2016 *New Visual Culture. Young artists project 2016*, EXCO, Daegu, Korea  
*Centennial Year of KIM Hyang An's Birth : The Muse, Kim, Hyang An II: Timeless*, Whanki Museum, Seoul, Korea
- 2015 *Mindful Mindless*, SOMA Drawing Museum, Seoul, Korea  
*Environment Art Festival-Nature and Human, Human and Nature*, Mudeng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ngju, Korea  
*Non-Equipment of Representation*, Hanok Gallery, Seoul, Korea  
*Momentum: Art OMI 1997-2014*,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 2014 *Praise Painted Meaning*, Hanwon Museum of Art, Seoul, Korea  
*Hommage à Whanki*, Whanki Museum of Art, Seoul, Korea  
*The Place is the Space*, Gallery Chosun, Seoul, Korea
- 2013 *Beyond Korean Painting*, Buk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Landscape Perceived*, ARARIO GALLERY, Seoul, Korea  
*Up-and-comers*, Total Museum of Art, Seoul, Korea  
*Enjoying The Seorak Mountain*, Ilhyun Museum, Yangyang, Korea  
*Missing The Whan Ki*, Kim, Whanki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12 *Paths of Clues*, Gallery SoSo, Paju, Korea
- 2011 *Do window*, Gallery Hyundai Gangnam, Seoul, Korea  
*Joongang Fine Arts Prize*, Seoul Art Center, Seoul, Korea  
*Rediscovery of Korea Painting*, Seongnam Art Center, Cube Museum, Seongnam, Korea
- 2010 *The Elastic Mind*, Dugahun Gallery, Gallery Hyundai, Seoul, Korea
- 2008 *Scola Contemporary Art Opening*, Art Scola, Project H, Beijing, China  
*Art And Science of Meeting*, National Science Museum, Gwacheon, Korea  
*Art Is Now*, Busan Biennale Special Exhibition, Busan, Korea  
*Funny Sculpture Funny Painting*, Sejul Gallery, Seoul, Korea  
*Product of Space*, Seongnam Art center, Seongnam, Korea
- 2007 *Pocheon Asia Biennale Special Exhibition*, Pocheon, Korea  
*From The Dot To The Dot*, Whanki Museum, Seoul Korea  
*The Bird Flying To the Sky*, Goyang Foundation Ewooolim Museum, Goyang, Korea  
*Around of ardor guys*, Art Scola Gallery, Shanghai, China

#### **AWARDS & SUPPORT**

- 2012 Gyeonggi Foundation of Art And Culture Fund, Korea  
 2011 Award of Excellence, The 33th Joongang Fine Arts Prize, Korea  
 2009 Seoul Foundation of Art And Culture Fund, Korea  
 2008 Selected Artists for the 3<sup>rd</sup> of Soma Drawing Center Archive, Korea  
 2006 Art Council Korea Foundation Award, Korea

#### **PROJECTS**

- 2015-16 Seed Project,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Seoul, Korea

#### **RESIDENCIES**

- 2013 ART OMI International Residency Program, USA  
 2012 CAN Foundation Myoungryundong Studio, Korea

#### **SELECTED COLLECTIONS**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eoul Museum of Art, Korea  
 Government Art Bank, Korea  
 Whanki Museum of Art, Korea

# ARARIO GALLERY

[IMMEDIATE RELEASE]

ARARIO Collection, Korea  
CAN Foundation, Korea  
JungAng Ilbo, Korea  
The Nan Contents Group, Korea  
ART OMI Collection, USA